



주한 라트비아 대사관

라트비아 개요



라트비아는 북유럽 발트해 연안에 위치한 인구 2 백만의 나라로, 유럽연합(EU) 회원국이자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Eurozone) 국가입니다. 지리적으로는 한국과 가장 가까운 유럽국가이며, 인접한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와 함께 발트 3 국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지정학적으로 유럽의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에 주변의 전통적 군사대국이었던 스웨덴, 독일, 폴란드, 러시아로부터 잦은 침략을 받아왔지만, 고유의 언어(라트비아어)와 민족정체성을 지켜낸 끈기 있고 강인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 이러한 역사적 배경 덕에 라트비아는 북유럽 최고의 무역, 상업, 문화의 중심지로 번성하였고, 스칸디나비아, 독일, 러시아의 문화요소들이 고유의 전통문화에 융합되어 전 세계를 매혹시키고 있는 독특하고도 풍요로운 라트비아 문화로 자리잡았습니다.

현재의 라트비아 공화국은 1918 년 수 천년 동안 라트비아어와 그 문화권이었던 영토에 건국되었으며, 2018 년 건국 100 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수도 리가(Riga)는 북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정치, 경제, 문화의 중심지입니다. 라트비아는 유럽연합(EU)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의 회원국이며,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자유민주주의의 국가입니다. 라트비아의 국가수반은 대통령이고, 의회가 선출한 국무총리가 내각을 구성하여 실질적으로 정부를 이끌고 있습니다. 라트비아의 의회(Saeima)는 4 년 마다 열리는 총선을 통해 선출되는 총 100 명의 국회의원으로 구성되어 입법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라트비아는 유로화를 사용하는 유로존(Eurozone) 국가이며,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작지만 개방적이고 투명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라트비아는 유럽연합에서 가장 빠르고, 안정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유럽의 동서남북을 잇는 지리적 장점으로 인해, 라트비아는 해양, 항공, 육상에 이르는 완벽한 교통과 물류의 요충지로서 기능하고 있습니다. 주요 산업 부문은 교통 및 물류산업과 함께 발달한 기계산업, 제조업, 첨단 산업, 목재 산업, 농업 그리고 식품 산업입니다. 라트비아의 3 대 항구인 리가(Riga), 벤츠피스(Ventspils), 리에파야(Liepāja)는 겨울에도 얼지 않는 부동항으로 다양한 국제 교역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리가 국제 공항은 발트 지역 최대 규모의 공항으로, 라트비아 국영항공사인 에어발틱(AirBaltic)의 본부가 위치한 공항이기도 합니다.

라트비아는 유럽 내 자유여행을 협정한 쉥겐(Schengen)조약 가입국으로 한국인의 경우 일정 기간 무비자로 여행할 수 있습니다. 2018 년 라트비아는 한국과 항공협정을 맺어 직항편이 개설되는데 동의하여 한국 여행객들의 라트비아 방문이 더욱 편리해 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국토의 대부분이 평야와 완만한 구릉으로 구성된 라트비아는, 유럽에서 가장 깨끗하고 긴 하얀 모래 해변, 원시의 모습을 간직하고 있는 울창하고 아름다운 숲, 비옥한 대지를 자유롭게 흐르는 맑고 투명한 강들과 수천 개의 호수들이 국토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라트비아는 유럽에서 가장 잘 보존된 다양한 야생 동식물의 보고로 불리고 있으며, 약 2 만 7 천종 이상의 동식물군이 인간의 손을 타지 않은 자연 환경 속에서 보호되고 있습니다.

2019 년은 라트비아와 대한민국이 1991 년 국제연합(UN)에 동반 가입하며 수교한 지 28 주년이 되는 해로, 그 동안 양국관계는 지속적으로 우호적이고 협력적인 최고의 우방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2018 년에는 평창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양국 수교 이래 처음으로 라트비아 대통령이 방한하여 양국 주요 기관 간 상호 방문, 비즈니스 교류의 확대 그리고 문화교육계에서의 더욱 활발한 협력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라트비아는 발트 국가 최초로 2015 년 9 월에 주한 라트비아 대사관을 개관하여 보다 폭 넓고, 깊이 있는 양국관계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